



세계 평화주일

설교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 평화주일 설교자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 설교 자료는 창세기 1:1-2:4a의 본문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세계평화주일 주제와 연결됩니다. 본 자료를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맞도록 각색하여 사용하십시오.

“정말 좋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나눈 뒤에 하는 말입니다.

“참 잘했어요,” 자녀들의 연주회나 운동 경기
뒤에 우리가 축하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학창 시절 작문 수업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좋다”라는 부류의 말 쓰지 않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도록, 또 우리의 글쓰기에 깊이를 더하도록
훈련받아 왔지요.

그래서인지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반복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과소평가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창조 세계에

있었던 완벽한 균형은 딱 맞는 느낌을
줍니다. 더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세부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술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

땅, 바다, 및 하늘,

새들, 바다 생물 및 육지 동물,

별과 달,

나무, 식물, 꽃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b)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교자료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거룩한 창조 안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시기에
좋다고 선포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이들로 임명하셨습니다.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결의문집 (1033)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의 동산 이야기는 창조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호 연결성을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와 또 그
외 창조 질서와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
“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성과 조화에 대해
알도록, 또 우리가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약속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초대하신다 (골로새서 1:15-20).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에 뚜렷한 부조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곧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변질시켰고, 우리와 지구
사이 또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의 관계 또한
망가트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강수량 부족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쟁과 정치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얻기
위해 함께 일하는 대신 서로 싸웁니다.

삶의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채,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처를 잃고 피난처,
음식, 안전과 환대를 필요로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 주일

설교자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정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존중한다면 모두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가치를 지닌다는 토대에서,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 정부에 의해 처형된 예수님을 부활시킬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창조 세계에 가해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의해 억압된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

인종 차별, 환경 수탈, 및 정치적 부패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번성하는 동산을 방해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치유라는 도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공동체로서 이런 일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평화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체계적 불의에 직면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복구하는 일을 가능케 합니다.

평화와 정의의 동산을 만드는 일은, 우리 각자가 지닌 거룩한 선함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